



# 정교회주보

제2491호

2024.09.22

한국 정교회 대구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그리스 성 루가 수도원(사진)은 10세기 중반에 설립되었으며, 아테네에서 165km 떨어진 해발 450m 스티리오티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수도원에 안치된 성 루가 운둔수도자의 성해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도원 성당의 모자이크와 벽화는 비잔틴 예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0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루가 제1주일  
성 포카스 주교 순교자  
(제4조 • 조과복음 2)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 주교순교자(순교사제)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가송 ..... 85
- 사도경 : 고린토 전 16,13~24 (봉)230
- 복음경 : 루가 5,1~11 ..... 122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자** 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아버지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깁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끌어당겨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또한 그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요한 6,44)라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각자에게는 그 자신을 끌고 가는 자신만의 기쁨이 있다.”라는 라틴어 금언과 비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성향은 특권적인 몇몇 영혼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그 아버지에게로 움직이게 하는 성향, 예수님의 기쁨인 이 성향과 결합합니다.

'예수'[정교회출판사] 중에서

# 대교구 설립 20주년(2004-2024)을 맞아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두 대주교 공동 집전으로 성찬예배에 이어 한국 선교를 위해 수고한 모든 협력자들의 안식을 위해 추도식을 거행하는 오늘은 한국 정교회에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한국 대교구와 일본 엑사르히아가 세계 총대주교청으로부터 설립된 지 20주년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정교회 신앙을 전파하는 데 기여한 모든 분들, 살아계신 분들과 돌아가신 모든 분들께 기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정교회는 124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대교구로서 세계 총대주교청에 소속된 것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하느님의 은총으로 중요한 업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엇보다 먼저,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당신의 은총과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대주교님은 끊임없는 사목적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나라를 네 차례나 방문하셔서 우리의 영적 여정을 지원해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포도원에서 함께 일한 모든 협력자들에게, 살아계신 분이건 이미 안식하신 분이건, 우리 교회의 거룩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지난 47년간 누구보다도 희생적으로 일하시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물질적 유산을 남겨주신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을 특별히 기리고 기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고인들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선한 투쟁”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그날에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주실 월계관”(디모테오 후 4,7-8 참조)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 영적 성장을 위한 조언 1

성 이삭 시리아인(7세기)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달**콤하고 향기나는 입술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당신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보다도 더 높이 들어올려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맞이하는 일에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값비싼 금을 제공하는 사람들 이상으로 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영광과 영예를 받는 것을 경멸하십시오. 그럼으로써 당신은 진정으로 영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과 영예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로써 당신은 불명예스러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나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서 나는 악취로 인해 역겨워하거나 혐오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또한 그들처럼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가 마땅히 받을 만한 정도 이상으로 그를 높이고 영예롭게 대우하도록 스스로 애쓰십시오. 따뜻하게 인사하고 맞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떠날 때는 모든 선하고 진실한 말로 그에 대해 말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당신은 상대방을 실제보다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당신이 이런 행동으로 특징지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제든지 아름답게 말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길 바랍니다.

마치 배우지 못하고 교양이 부족한 사람처럼, 대화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고 당신의 의견을 말하지 마십시오.

초대받은 집에 들어갈 때는 여기저기 눈을 돌려 주변의 물건들을 살펴보지 마십시오.

## 주간 예배 안내

\* 9월 26일(목)  
성 요한 복음사도 신학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알림

### ■ 심포지엄 개최 안내

정교회, 천주교, 개신교(NCCK) 공동 주관으로 AI(인공지능)와 그리스도교에 관한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날짜: 9월 27일(금) 오후 2시
- 장소: 명동대성당 고틀홀
- 주제: AI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관점: 봉사자인가, 지배자인가?
- 연사: 정교회 니콜라오스 대주교(메소게아&라브레오티키 대교구), 천주교 한창현 신부, 개신교 신익상 목사

### ■ 한국 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 안내

10월 3일(목), 24인 수호성인 축일을 맞아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조과는 9시 30분에, 성찬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소속 성당을 통해 미리 알려주시면 식사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영성의 샘터

## 영적 성장은 침묵 속에서

마카리오스 사부는 성찬예배가 끝날 때쯤에 성당 문 앞에 서서 나가는 수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형제들이여, 떠나시는가?”

“사부님,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젊은 수도자들이 물었다. “혹시 더 깊은 광야 말씀이신지요?”

그러면 성인이 그의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대답했다.

“여기, 이것에서 떠나라는 말일세.”

성인은 대화를 뜻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대화는 생각을 흐뜨려 놓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얻은 좋은 생각들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